

“공정성 논란 없앤다”...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6월 18일로 공판 날짜 변경
서울고법 “균등 선거운동 보장”
민주 “국민주권·상식 맞는 판단”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게 제기된 ‘후보 자격 박탈’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 후보가 대권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이다. ▶관련기사 3면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보내는 파기환송을 선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일 담당 재판부를 배당하고 첫 공판 기일을 잡는 등 사건 진행에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투표일(6월 3일)전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를 마무리해 이 후보의 후보 자격

을 박탈하겠다는 의도로 파악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사법부에 국민 참정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를 오는 12일까지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사법부가 공판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 정문회, 국정조사 등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입법권’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 변호인단은 7일 재판부에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의 공판 기일 연기로 이 후보는 후보 자격 박탈 위기에서 벗어나 선거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2면으로 이어짐
서울=김현수 기자



‘두근 두근’ 올해 첫 징병검사 2025년도 첫 징병검사가 실시된 7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김태규 기자

최태원 “SKT 해킹사태 해결 최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SK텔레콤에서 일어난 해킹 피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의 사과는 해킹 사고 이후 19일 만이다.

그는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라고 생각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며 수펙스 추구 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안 정보보호 혁신위원회를 구성, SK하이닉스 등 전체 그룹사를 대상으로 한 보안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

래 기다렸거나 해외 출국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 졸인 많은 고객에게 불편을 드렸다. 지금도 많은 분이 피해가 없었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SKT 이사회가 논의 중이고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저는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서 드릴 말씀이 여기까지”라고 했다.

최 회장은 사고 이후 소통 미흡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객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 뼈아프게 반성한다. 고객뿐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이 마땅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안전 혁신” 무안국제공항 하늘길 새롭게 연다

항행 안전시설·활주로 연장
조류탐지 레이더 최초 설치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서남권 관문인 무안국제공항의 안전시설이 대폭 강화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도민과 이용객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무안국제공항의 안전 수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우선 참사를 키운 주변으로 지목돼온 콘크리트 둔덕형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은 올해 8월까지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된다.

또 현재 199m인 중단안전구역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에 맞춰 활주로 양 끝 240m 이상을 확보해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 방어선을 갖추게 된다.

2,800m인 활주로도 8월까지 3,160m로 연장될 예정이어서 중·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차 사고 요인으로 지적돼온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당장 올해 하반기 전국 공항 중 최초로 무안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가 설치돼 조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을 사전에 차단할 최첨단 시스템으로 무안공항 항공안전 혁신의 핵심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열화상카메라, 음파발생기 등 추가장비가 8월까지 도입되고, 조류 대응 전담인력도 현재 4명에서 연말까지 12명으로 대폭 증원된다. 국토부는 조류 퇴치용 드론을 개발해 무안공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항 주변 환경관리도 한층 체계화된다. 기존에는 공항 반경 3~8km 이내를 조류 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13km까지 확대한다. 또 조류감시용 CC-TV와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춘 통합감시센터가 내년에 시범 설치돼 정밀하고 신속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수공항의 항행 안전시설도 대폭 개선된다. 연말까지 방위각시설이 설치된 높이 4m의 둔덕을 제거하고, 충격 시 파손되는 경량구조물로 교체된다. 조류탐지 레이더도 2026년 도입 목표로 설계를 착수하는 등 무안공항과 함께 전남권 공항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혁신방안이 무안공항의 재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안공항이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다스코|주
Development Advance Solution Co., Ltd.

https://dasco.kr



한국거래소
코스피상장기업



KODATA
신용등급
A0

100년 기업을 향한 창조와 혁신

가드레일 국내 M/S 1위 기업 및 건축자재 기업에서
기후문제 및 층간소음분쟁 등 사회적 이슈를 함께 해결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부

Renewable Energy Business

육상 및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
금융솔루션 제공 엔지니어링 자재조달 | 시공 |
구조물생산(Pos-MAC) | 운영 및 유지관리 | 태양광방음터널 | ESS

아파트 층간 소음 저감재

Inter-Floor Noise Material Business

기포 콘크리트 + 소음저감재 + 마감물질
습식, 건식 공법 가능

데크플레이트 사업부

Deck Plate Business

데크플레이트 생산 및 제작 | 이지 강판탈형데크 이지 스틸데크 |
이지 합판탈형데크 | 이지 단열재데크 | 장스판데크

단열재 사업부

Heat Insulating Material Business

단열재 생산 및 제작 | 이지 보드 | 경질우레탄폼 1,2종

인프라 사업부

Infrastructure Business

방음시설 (일반 방음터널, 일체형 방음터널, 방음벽)
방재시설 (배연창, 내화보드, 소방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가드레일, 교량방호책 등)
건설사업 (중합·토목건축, 전문·금속창호 등)



당진 테크플레이트 | 합판데크 |
1공장 스틸데크 | 단열재데크



당진 단열재
2공장 (경질우레탄 1,2종)(EG보드)



군산 장스판데크, 층간소음 저감재,
1,2공장 수상태양광



화순 방음시설,
1,2공장 도로안전시설



다스코|주
Development Advance Solution Co., Ltd.



솔에코|주 (육상, 수상, 영농형태양광)



스틸코|주 (철근유통)



가스코|주 (가드레일, 교량난간)



세라코|주 (경관시설, 외장재, 수처리)

학교법인홍인학원 (영산중·고등학교) | 홍인(부동산 임대업)